



작품과 나를 이어주는 다리

# 아람미술관 도슨트 자원봉사자



언젠가 찾은 전시회에서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니 그림이 더 가깝게 느껴졌다. 미술관의 숨은 꽃이 큐레이터라면, 도슨트는 작품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림을 그져 '바라보는' 것을 넘어 '감상'을 풍부하게 채워주시 말이다. 아람미술관의 도슨트 자원봉사자는 전시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글 김지애 사진 심민규



왼쪽부터 이종현 도슨트, 박유진 매니저, 조현주, 조숙영, 정윤희 도슨트

“ 아람미술관의 도슨트 자원봉사자는 전문 도슨트는 아니지만, 자신들의 해설로 전시를 보러 오는 분들의 예술 감각을 깨우고, 일상에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작은 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한다. ”

### 열정으로 준비하는 전시 해설

2007년 개관한 아람미술관은 다양한 기획전시를 통해 고양시민들의 문화·예술 감각과 소양을 책임지고 있다. 도슨트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미술관 개관부터 운영하여, 현재 30~40명의 자원봉사자가 작품과 관람객을 이어주고 있다. 도슨트 자원봉사자는 도슨트 양성 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우선 선발해 8주 정도의 교육 과정을 거친다. 퇴직 후 소일거리를 찾거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 등 저마다 참여 계기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미술과 전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다. 그리고 도슨트의 가장 중요한 자질인 전달력을 본다. 큐레이터의 기획 의도와 작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고, 객관적인 해설이 필요하다. 올해로 6년째 자원봉사를 하는 이종현 도슨트는 “도슨트는 비평가가 아니다. 작품과 관람객 사이에 있는 사람이다. 작가의 의도를 잘 전달하려고 애쓰면서 관람객이 자유롭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람미술관은 1년에 4번 기획 전시가 진행된다. 도슨트 자원봉사자는 3개월마다 미술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공부에 매진한다. 풍부한 해설을 위해 책과 관련 논문, 평론을 찾아보기도 마다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다른 미술관이나 전시를 찾다니며 해설 방법을 참고하기도 한다. 전시에 앞서 리허설 과정도 거친다. 같은 전시라도 관람객의 연령대나 지식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눈높이에 맞춘 해설을 전달한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공부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도슨트 분들의 열정이 대단하다.”는 것이 박유진 매니저의 후문이다.

### 미술관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바라며

전시 해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 힘든 점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 아람미술관 도슨트 자원봉사로 3년째 활동 중인 정윤희 도슨트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작품을 통해 정확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앞으로 어떤 전시가 기획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숙영 도슨트(6년 차)는 “유치원에서 단체로 전시회를 많이 찾는다. 어느 날 준비된 시간을 마무리하고, 끝인사를 하는데 6살 꼬마가 인사를 하면서 품에 꼭 안겼다. 너무 보람되고 감동적인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아람미술관의 도슨트 자원봉사자는 전문 도슨트는 아니지만, 자신들의 해설로 전시를 보러 오는 분들의 예술 감각을 깨우고, 일상에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작은 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한다. 조현주 도슨트(6년 차)는 “예술에 대한 경외감이나 예술은 지루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물을 마시고 공기를 마시듯이 일상처럼 편안하게 아람미술관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아람미술관 도슨트들은 관람객의 즐거운 예술 감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바쁜 일상 속 어딘가 공허하다면, 아람미술관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마음을 끌어당기는 작품이 있다면, 온전히 작품을 받아들여 본다. 도슨트 자원봉사자가 작품과 나 사이에 다리가 되어 지루했던 일상에 생기를 전해줄 것이다.

### 더 알아보기



도슨트(docent)란? 가르치다라는 뜻의 라틴어 'docere'에서 생겨난 용어로, 전시회에서 작품을 관람객에게 설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 고양아람누리  
시간 화~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오후 5시 30분 입장마감)  
문의 031-960-0180 / www.artgy.or.kr